

진흥회 활동

폐가전 리사이클센터 건립



본회는 폐가전의 회수처리 체계구축을 위해 그동안 검토해 온 폐가전 리사이클센터 건립방안을 최종 확정, 대우전자·삼성전자·LG전자 등 가전3사 공동으로 오는 2000년까지 수도권·중부권·경북권·경남권·호남권 등 5개 권역에 폐가전 리사이클센터를 건립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본회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자회관에서 이상원부회장과 가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사이클센터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를 위 본회와 가전3사는 우선 오는 9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그동안 문제가 된 페우레탄 재활용 공장을 수도권에 건립하는 한편 프레온가스(CFC)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98년부터는 광역집하장 등의 부지확보를 통해 리사이클센터 건설을 위한 2단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 5백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가전3사는 매출액 비율로 사업기금을 출현하는 한편 그동안 가전업계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중 미반환예치금 2백10억원을 리사이클센터 시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전자산업진흥회와 가전3사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에는 폐가전 제품의 회수처리율이 60%에 이르고 오는 200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폐가전처리 수수료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가전업계가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폐가전회수 관리체계를 단일화시켜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산업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장·단기 대책건의

본회 통상과에서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산업용전자와 일반부품에서 일본에 연간 40억달러, 산업용분야에서 미국에 연간 1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엔저 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환율을 신축성있게 운용해야 하며 또한 업계는 주요 교역국과의 수입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중소부품업체들의 해외진출

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공단을 조성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건의하였다.

전자산업의 전반적인 흑자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일, 대·미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전자산업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본회는 이 건의서에서 단기 개선과제로는 부품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자금지원 확대, 국산불가 전자부품 관세율 인하,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산업 정보망 구축 및 운용지원, 세금 등의 인하를 통한 무선통신기기 수요확대, 폐기물 예치금 효율인하역제, 가전제품 특소세인하, 폐지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제조물 책임법(PL법) 제정추진 연기, 대미화 환율의 안정적인운용을 제안하였으며 중장기개선 과제로 전자산업의 우수기술개발 인력공급확대, 중소부품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공단지 조성 지원, 폐기물 예치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컴퓨터 등 기술집약제품의 정부구매제도 개선 전자정보 산업단지 조성지원, 전문 산업 전시장전립 추진 등을 건의했다.

신산업발전 민관 협력회의

본회는 지난 8월 26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통상산업부 주체로 정보통신기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계에서 한국컴팩컴퓨터(주) 이강훈사장 등 5명 학계에서 전주식 서울대교수 등 5명, 정부에는 통상산업부 박재윤장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비교분석 보고로 산업연구원 박성택실장이 “한국·미국정보통신기기산업의 비교”를 서울대 이유재교수가 기업비교분석 보고로 “모토롤라와 LG정보통신의 비교”, 통상산업부에서 “통상산업부의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경쟁력, 정보통신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

그에 따른 대응방안 및 지원정책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폐가전품 공동처리 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본회 환경과에서는 지난 29일 리사이클 사업단 회의실에서 가전3사 물류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폐가전품공동처리사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리사이클 사업단의 1단계 사업 세부계획으로 수도권에 폐냉장고 단열재 우레탄 재활용 공장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선정 및 설비 등을 검토하였다.

전자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자문회의

본회는 지난 8월 1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학계, 연구소,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등 21명이 모인 가운데 전자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전자산업의 수출이 최근 둔화됨에 따라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약 3개월에 걸쳐 국내외의 현지실사를 통해 전자산업 경쟁력 실태를 조사, 열위요인을 분석하고 그 강화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수출유망

품목의 핵심부품개발 등 5대 중점사업은 진흥회가 업계와 함께 실천해 나가기로 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강화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의견개진을 하였다.



가격표시제 개선에 대한 전자업계 애로 건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표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자제품 가격표시제 실태조사가 가격표시제 개선, 폐지론을 주장한다고 판단하여, 전자제품의 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가치기준을 알려주고 유통업자의 폭리를 제한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는 순기능 측면으로 정착되고 있는데다 동제도 폐지될 경우 가격정보에 어두운 소비자의 혼란 가중과 농어촌 지역의 소비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함은 물론 영세 유통업자의 도산과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국 가전업체 및 유통업체의 국내 상륙을 촉진케하는 결과를 초래케되는 만큼 현행대로 가격표시제도를 유지시켜 주기를 건의하였다.

EIAK 표준화 규격서 개정을 위한 회의

본회 형명등록과에서는 지난 8월 21일 대전유성에서 LG전자 김성록대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IEC TC-39 WG2 런던회의('96.4)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협의와 EIAK표준화 규격서 제·개정작업을 하였다.

○ EIAK 표준화 규격서 제·개정 작업

- TC-5016B(음극선관 X선 한계곡선의 표시방법 및 X선 특성규격의 정리법)
- TC-5018B(음극선관의 X선 양을 한계곡선의 작성방법)
- TC-5020B(프로젝션용 음극선관의 누설X선 측정방법)
- TC-5021B(비라스타 주사방식 직시형 음극선관의 누설X선 측정방법)
- TC-5026A(비라스타 주사방식 직시형 음극선관의 X선 한계곡선의 명명방법 및X선 규격의정리법)
- TC-5025(음극선관의 X-Radiation특성곡선의 준비)
- TC-5012B(음극선관의 형명체계)
- TC-514B(음극선관용 유리의 형명)

개정완료

제정완료

업체별 Review완료

전자부품 종합총람 제작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부품업계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 전자부품의 각종 정보를 수집, 이를 「한국의 전자부품총람(영문판)」으로 제작, 국내외의 1,000개 셋트업체에 무료로 제공하면서 우수한 국산 전자부품을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가 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취약한

전자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산부품의 구매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자측에서는 국산부품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국내 전자부품 업체는 그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인해 영세기업들이 많아 외국 셋트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셋트업체에도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흥회는 국내 전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전자관, 저항기, 콘덴서 등 4,000여종(규격기준)의 전자부품에 대해 외형, 규격, 특성, 도면, 사진 등 구매에 필요한 각종정보를 모두 수록한 「'96/97 한국의 전자부품 총람」을 제작, LG, 삼성, 대우, 현대 등 국내 500개 셋트업체와 마쓰시다, 소니, 도시바 등 500개 외국 셋트업체

체에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자부품 구매를 요청하였다.

FBT 표준화 위원회 회의개최

본회 부품과(FBT 표준화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FBT에 대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대우전자부품 등 관련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Pinlayout, 핀외형, Focus Pack GND위치 및 핀홀, 고정/취부용 기기구조 등 FBT 표준화 항목별 협의가 이루어졌다.

진흥회 8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8. 1.	수출점검만 회의	국 제 부
8. 7	전산 실무위원 회의	전 산 실
8. 9	PC수출분과위원회 회의	정보산업과
8. 9	가전재활용 사전평가회의	환 경 과
8.14	가전제품 특소세인하 및 폐기추진을 위한 공청회개최	가 전 과
8.16	부호분할 다중방식(CDMA) 특허관련업체 회의	산업전자과
8.16	전자산업국제경쟁력 강화대책 자문회의 개최	기 획 과
8.17	리사이클사업단 발족	환 경 과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8. 21	주한튀니지대사관 본회 방문	국 제 부
8.21 ~ 22	형명등록 규격표준화회의	형명등록과
8.22	FBT표준화 위원회 회의	부 품 과
8.23	컴퓨터 산업협의회 임원회의 개최	정보산업과
8.24	통신산업협의회 임원조찬회	산업전자과
8.25	VCR표준화 위원회 회의	부 품 과
8.27	폐가전 공동처리 실무위원회 개최	환 경 과
8. 29	C-TV 표준화 회의	가 전 과
8.29	통상대책회의	국 제 부